

학생 유괴 예방교육 계획 마련

전북교육청, 전국 각지서 유괴 등 사례 발생 따라

유괴의 유형·예방 등 내용 담아 도내 학교에 안내

안전교육은 조·종례시나 하교 5분 전에 실시

교육지원청서 현장 대응 설명회·경찰청과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유괴 및 유괴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학생 유괴 예방 교육 계획'을 마련, 지난 8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계획에는 유괴의 유형, 유괴 예방 및 대처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아 조·종례시나 하교 5분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괴 및 의심 상황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청·지원청·경찰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당 자료에는 낯선 사람 응대 요령,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장 대상 유괴 예방 및 현장 대응 설명회도 진행하도록 했다.

이미 군산은 10일, 전주는 11일 설명회를 진행했고,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도 일정에 따라 학교 관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괴 등을 포함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전북교육청은 유괴 등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순찰 강화를 전북경찰청에 요청한 것은 물론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학교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확충, 학교 주변 순회 점검을 강화한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점검 및 보완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시 경쟁률 7.52대 1

학생부교과 콘사람전형 간호학과 22.71대 1

일반학생전형에서 교육학도가 24.00대 1

지역인재전형 융합자율전공학부2 24.22대 1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12일 오후 7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301명 모집에 24,812명이 지원해 7.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34대 1 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2,257명 모집에 1만5,106명이 지원해 6.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906명 모집에 8,876명이 지원해 9.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콘사람전형에서는 간호학도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7명 모집에 159명이 지원해 22.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전형에서는 교육학도가 4명 모집에 96명이 지원해 24.00대 1로 가장 높았고, 지역인재전형에서는 융합자율전공학부2가 9명 모집에 218명이 지원해 24.22대 1의 경쟁률로 최고치를 보였다.

우석대, 유아 정서·심리 지원
올해 위탁 운영기관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 유아 정서·심리 지원사업'의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서·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치료 개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우석대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3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 2월까지 정서·심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희(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총괄 책임을, 장진희(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는다.

프로젝트는 △찾아가는 집단상담 '마음성장 교실' △개별 맞춤형 치료 지원 '마음동행 유아 지원' △교원 연수와 학부모 상담 '마음보듬'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개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성희 교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치료 프로그램을 넘어, 유아의 삶 전반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석대학교가 가진 지역 밀착형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 유아들의 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11월 7일 오후 2시에는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되고, 11월 6일에는 예체능 실기고사가, 11월 20일에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대는 올해 전체 모집 인원(4,429명) 중 74.5%인 3,301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 906명,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257명, △예체능 실기 135명 등이다. 의과대학은 전년도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103명보다 17명 감소한 86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콘사람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전형에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농어촌학생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 80%와 정성평가 20%를 반영하여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체능·실기 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실기고사 점수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입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계열중심의 모집단위 광역화를 적용해 공과대학은 공학계열 1, 2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농업생명과학계열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과학계열로, 경상대학은 경상계열로 모집하는 등 기존 106개 모집단위가 46개로 통합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첨단분야 모집단위로 이차전지공학과와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됐다.

또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감점기준에 따라 환산총점에서 감점 조치된다.

각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의학계열 힐링공간 ‘줍카페’ 새로 문 열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져

향후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

전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양오봉·이하 생협)이 의과대학 내에 '줍카페'를 새롭게 열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류와 휴식을 위한 힐링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오픈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대학 보직자, 의과대학 교수진과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줍카페는 단순한 커피 판매 공간을 넘어, 공부와 연구로 지친 구성원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생협



은 향후 다양한 이벤트와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줍카페가 의학계열 구성원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본부와 생협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임실군 취업박람회 참여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1일 '2025년 임실군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구직자들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임실군에 거점을 둔 ((주)뉴트라코어, (주)한한&B, 나래식품(주), (주)사조양양,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섬진강다슬기마을(주), (유)왕성식품, (주)진성기업 등 기업들이 참여해 △채용관 △컨설팅관으로 나눠 관내 취업에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관계자들이 만나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컨설팅관에서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청년, 관내 구직자, 특성화고 2~3학년 학생 등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컨설팅 및 MBTI검사 진단을 진행했다.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센터장은 "채용박람회를 통해 임실군 지역청년 및 군민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I·나노분석으로 모발 손상과정 규명

전북대 안상민 교수팀, 바이오 소재 등 첨단 소재 연구로 확장 새 도구 제시



안상민 교수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안상민 교수 연구팀(공동연구 최형국·조명래·송태근 교수)이 인공지능(AI)과 나노분석 기술을 결합한 모발 손상 과정을 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 및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VIEW' 최신호(2025년 9월 3일자, 논문제출일 기준 IF 9.7 / JCR 상위 6.6%)에 게재됐다.

지난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모발 손상 규명을 넘어, AI 기반 나노 분석 플랫폼을 통해 섬유와 바이오 소재, 고분자(폴리머) 등 다양한 첨단 소재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전자현미경(SEM)과 원자 힘 현미경(AFM)으로 얻은 나노스케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GAN)을 학습시켜, 염색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AI는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염색 중간 단계'의 머리카락 내부 변화를 가상으로 재현해 손상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했다.

그 결과, 염색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카락의 영률(Young's modulus)이 점차 낮아지고, 3 GPa 이하의 저강도 영역이 확대되며, 표면 거칠기와 손상 스카치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정량적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인 안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머리카락 손상 과정을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AI-나노분석 융합 플랫폼을 확장해 차세대 화장품, 바이오 소재, 섬유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연구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연구재단 G-램프(G-LAMP) 사업 등을 통해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현관에서 고위직공직자와 함께하는 '2025년 청렴 비타민데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고위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 비타민데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등 참여, 출근길 직원을 격려·소통… 청렴 조직문화 조성 일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본관 현관에서 고위직공직자와 함께하는 '2025년 청렴 비타민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장들은 청렴 문구를 담은 비타민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타민과 함께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렴부채·청렴정책 안내자료'

도 배부해 청렴 실천 의지를 더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청렴 가치를 공유해 더욱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평준화지역 일반·자공고 신입학 전형 요강 확정

전북교육청, '중증장애인의 자녀·형제자매' 선배정 대상자 추가… 원서접수는 12월 17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2일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신입학 전형 요강'을 확정, 공고했다.

2026학년도 평준화지역 전형 요강에 따르면 전주 23개교 5,798명, 군산 8개교 1,890명, 익산 8개교 1,680명 등 총 39개교에서 9,368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7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다.

도내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학급당 정원은 전주 26명, 군산 27명, 익산 24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했다. 이는 2026학년도 고입전형을 치르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선배정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가족돌봄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을 근거리 학교에 배정,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

응시원서는 '네이스(NEIS) 시스템과 연계한 고입지원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중학교에서 접수

하면 된다. 이외의 지원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녀 구분 없이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학교 배정은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자에 한해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순위에 따라 학교별 배정정원을 정하고, 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해 1차당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한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 학교 배정은 내년 1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같은 날 오후 2~5시까지지는 치명자산 세미나실에서 도내 각급 학교 영양(교)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영양상담 진단시스템'을 활용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뉴트리아이 한영신 박사가 강사로 참여해 키성장, 편식, 비만, 저체중 등 주요 학생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이후 주제별 분임토의 및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 사례 등을 공유하며, 학생 건강증진과 바른 식습관 형성 방안을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